

한전, 신안에 4.5GW 해상풍력단지 조성

전남도·신안군과 협약...2028년까지 11조원 투입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3만여개 일자리 창출

한국전력공사가 약 11조원을 들여 신안에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 이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의 하나로, 일자리 창출 규모가 3만여 개에 달한다.

한전과 전남도, 신안군,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신안 입자도에 1.5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3GW 규모의 송·변전 설비를 구축하는 '신안 해상풍력 MOU 체결식'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안 입자도 20~30km 해상에 건설하는 풍력단지는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조

성된다. 총 발전규모는 8.2GW로 총 사업비는 48조5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이 사업 중 1단계(1.5GW) 사업을 주도한다. 한전은 해상풍력 사업개발과 송변전설비 구축을 총괄하고, 전남도·신안군은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과 부지확보에 나선다.

전남개발공사는 조사·계측 등 발전단지 개발 관련 업무를 맡는다. 1단계 사업비는 20조원으로 한전은 11조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한전과 전남도는 민간사업자의 참여의

향 조사를 통해 이달까지 컨소시엄(공동 참여)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사업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오는 2021년까지 기상탑을 설치해 풍황을 계측하고, 오는 2022년에는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마쳐 2023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상업운전 개시 목표일은 2029년이다.

'신안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맞닿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하고 실증단지를 조성하며 신안 해상풍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흥 해양만담수호 100ha에 95MW 규모의 발전을 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는

내년 6월 착공 예정이며 전국 고장·부안에서 개발 중인 60MW 규모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설비 목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신안 뿐만 아니라 서남해·울산 등 다른 지역 해상풍력 사업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해상풍력은 이산 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힘을 보태고 나아가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송중욱(왼쪽 세번째) 광주은행장이 지난 19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지역 아동을 위한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저소득층 어린이에 500만원 성탄선물

광주은행이 성탄절을 앞두고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500만원 상당의 소원선물을 전달했다.

광주은행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지난 19일 광주은행 본점 1층 KJ원더랜드에서 '원더랜드 산타오셨네' 행사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은행 창립 51주년을 맞아 가정환경이 어려운 지역아동 51명을 KJ원더랜드에 초대해 성탄절 선물을 전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 직원들은 어린이들의 소원 선물을 미리 받아 패딩점퍼, 운동화, 장난감 등 선물을 마련했다.

광주은행은 2015년부터 매년 겨울 선물의 집, 회전목마, 포토존 등으로 구성된 'KJ원더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 1월31일(1월 25일 휴무)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건설협회, 예타면제 지역의무도급 환영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공후식)는 최근 당정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지역업체 의무공도급 적용과 광주·보성·순천 고속전철 사업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설협회 전남도회는 환영 성명에서 "이번 정책은 전남건설협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일감 확보 차원에서 정부와 전남도, 국회 등을 방문해 적극 추진했던 사업"이라며 "건설업계는 앞으로 지역 인력고용 확대와 경제 활성

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약 21조원 규모의 20개 국책사업에 대해 지역의무 공도급 40% 참여를 확정했다.

특히 전남도는 지역의무공도급 적용을 위해 해당 부처 장관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서신을 보냈으며, 경전선 고속전철 사업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열차 탑승 행사를 여는 등 민·관이 함께 노력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금융투자협회장에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 선출

금융투자협회 제5대 회장으로 나재철(59) 대신증권 사장이 선출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76.3%의 득표율을 기록한 나 후보자를 제5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이다.

나 당선인은 "금융투자가 자본시장 발전의 첨병이 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자본시장이 한 차원 더 성장하고 금융투자가 제2의 도약을 맞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소통하며 관련 정책들을 실현하고 직면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두 발로 뛰겠다"고 당

선 소감을 밝혔다.

나 당선인은 1985년 대신증권에 공채로 입사해 강남본부장과 리테일사업본부장, 휴세일사업본부장 등을 거쳐 2012년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나 주 출생선 그는 광주 인성고, 조선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외국어대에서 경영학 석사와 국제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효성ITX, 모바일기반 '스마트 컨택센터'로 신규시장 확대

상담원 재택·유연근무 가능 경력 단절 최소화·전문성 제고

효성이 재택근무 등이 가능한 모바일기반의 '콜센터 솔루션'을 개발, 신규 시장 확대에 나선다.

효성의 정보통신(IT) 계열사인 효성ITX는 삼성전자와 함께 지난 20일 서울 시 강남구 인터컨티넨탈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 컨택센터 세미나'에서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컨택센터(Contact Center-콜센터) 솔루션'을 최초로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 컨택센터는 5세대(5G) 통신과 LTE망을 이용해 모바일로 상담할 수 있는 컨택센터 솔루션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효성ITX 직원들이 모바일기기를 모니터에 연결해 '스마트 컨택센터 솔루션'을 시연하고 있다. (효성ITX 제공)

이 솔루션을 도입하면 상담센터 직원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상담할 수 있어 재택근무·유연근무 등 다양한 업무 형태로 일할 수 있다. 특히 70% 이상이 여성인 상담사들의 경력 단절이나 이직을 최소화해 숙련된 인재들이 고객에게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객사들도 별도의 컨택센터를 구축하거나 운영과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시장 환경이 IT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고객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에 IT를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 제조업 자본잠식 심각...부채비율 전국 평균의 1.5배

한은 '작년 기업경영분석'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체는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제조업 부채비율은 전국 평균의 1.5배 수준으로 높았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0일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5만268개를 대상으로 '2018년 광주·전남지역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제조업 부채비율은 113%로 전년(112.2%)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총자본에 대한 차입금 비율인 '차입금의존도'는 33.7%로 전년(33.2%)보다

0.5%포인트 올랐다.

기업의 안정성을 상징하는 부채비율은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역 제조업 부채비율은 전국 평균(73.6%)의 1.5배 수준으로 높았고, 차입금 의존도도 평균(22.3%)을 크게 웃돌았다.

업종별로 보면 기타운송장비 부채비율이 332.1%로 전국 평균(144%)의 2.3배였고, 1차금속(135.6%)도 전국 평균(59.7%)보다 2.3배 높았다. 반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부채비율(53.6%)은 평균(64%)보다 낮았다.

건설업, 도·소매업 등 지역 비제조업의 부채비율도 심각했다.

지난해 비제조업 부채비율은 117.6%로 전년(113%)보다 4.6%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평균(73.6%)을 크게 웃돌았고 특히 도·소매업(129.4%)은 전국 평균(117.7%)과 큰 차이를 보였다.

광주·전남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한 4.1%를 기록했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0.7%포인트 오른 5.3%로 집계됐다.

비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7.7%포인트 하락한 1.2%였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3.2%포인트 하락한 2.4%로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로또복권 (제890회)

| 당첨번호 | 2등 보너스수치 | |
|-----------------|---------------|-----------|
| 1 4 14 18 29 37 | 6 | |
| 등위 | 당첨금(원) | 당첨자수 |
| 1 6개 숫자일치 | 2,335,486,167 | 9 |
| 2 5개 숫자+보너스숫자일치 | 60,400,505 | 58 |
| 3 5개 숫자일치 | 1,474,424 | 2,376 |
| 4 4개 숫자일치 | 50,000 | 114,859 |
| 5 3개 숫자일치 | 5,000 | 1,915,593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062)531-3530

H.010-9229-3530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가 돌리거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가지런한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